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정시모집 적성 · 인성면접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사 · 전문석사 통합과정]

제시문 [1]



“공학은 거대한 발명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도 있다”

※ 출처: Caitrin Lynch and Sara Hendren, “Engineering at Home” Project

제시문 [2]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후,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기존 판옥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형 전투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부하 장수 중 기계와 공학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나대용을 불러 ‘거북선’ 설계를 지시했다.

나대용은 설계·제작 전 과정을 총괄하며, 철탑 방어, 포문 배치, 화포 사거리 보정 등 세부 기술까지 완성시켰다. 이순신은 같은 해 5월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선두에 배치해 적 진형을 무너뜨리고, 판옥선으로 후방 포격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전투 직후, 승전보를 들은 선조는 명을 내린다. “이번 승전의 최고 공로자를 명확히 기록하여 장계에 올리라.”

나대용이 최고 공로자로 기록되면 기술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휘관의 권위와 조정 내 정치적 입지가 약화 될 수 있다. 이순신이 최고 공로자로 기록되면, 지휘관의 지도력이 부각되어 조정과 민심 안정에 유리하지만, 공을 독차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동 명기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면, 선조가 “승전의 최고 공로자가 모호하다”며 불쾌해할 위험이 있다.

보고서 내용은 향후 포상, 진급 및 역사적 기록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나대용뿐 아니라 휘하 장수와 군졸들도 장계가 어떻게 작성될지 관심을 갖고 있다.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음

제시문 [3]

한 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승인 하에 지역사회 구강보건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현장을 이끌었다.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 언론에도 ‘학생 주도 봉사 활동의 모범 사례’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봉사에 참여한 학생의 흡연에 의해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은 추가 인터뷰를 요청하며 성과와 별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의견이 엇갈렸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봉사 활동의 긍정적 성과와 학교의 위상, 그리고 향후 학생 자율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 [4]

다음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구분을 나타낸 표이다.

레벨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자동화 항목	없음(경고 등)	조향 or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운전 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 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잡을 필요)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X)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보도자료(2021)

제시문 [5]

다음 사진은 한 기업이 개발한 로봇이 치과 치료를 시연하는 모습이다. 치의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진단과 로봇 치료를 통해 치과 진료 전 과정을 자동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조선일보 기사 중 발췌하였음 (2024.08.08.)

제시문 [6]

1. 치의학대학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2. 최근 치의학 전공과 관련하여 스스로 찾아본 이슈나 공부한 내용이 있나요?
3. AI 시대에 치과의사의 역할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4. 지원자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5.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지원자의 어떤 성향이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